

numbers 제 46호



주요 내용

2020. 05.08

1.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2.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3.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4. [넘버즈 칼럼] '청년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우리 국민은 ‘가족’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조사 결과 ‘편안한’, ‘따뜻한’, ‘힘이 되는’ 등의 인식을 갖고 있다. 가족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버팀목이다. 전통적인 가족관, 가족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족 간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강한 믿음이 있다. 부모의 69%가, 자녀의 65%가 현재의 부모·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응답했다. 1인 가구 대세, 가정의 해체 시대라 일컫지만 그래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46호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 가족관의 변화 등을 다루어 보았다. 전 국민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의 우울한 시기에 건강한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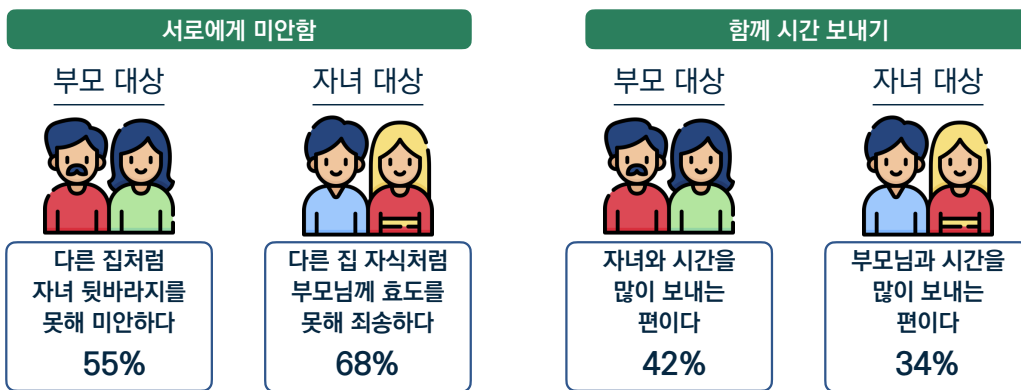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의 부모, '다른 집처럼 자녀 뒷바라지 못해 미안하다' 55%

- 한국의 부모와 자녀는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55%는 다른 집 부모처럼 자녀 뒷바라지를 못한 미안함을, 자녀의 68%는 다른 집 자녀처럼 부모님께 효도를 못한 죄송함을 각각 갖고 있는데, 부모보다는 자녀가 미안함의 정도가 더 높음
- 함께 시간 보내기에 대해서는 부모 자녀 간 양쪽 모두 30~40%의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임

[그림] 부모 세대 vs 자녀 세대에 대한 인식 1 (%)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2017.04.28. (전국, 19~6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3.10.~15)

● 부모,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더 잘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강해!

-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고 싶어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앞을 막는다. 조사 결과, 부모는 자녀에 대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움 속에서 키우지 못한 아쉬운 마음(66%)이 있으며,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56%), 경제적으로 결혼까지 뒷받침할 자신이 없는 아픔(46%)이 있음

[그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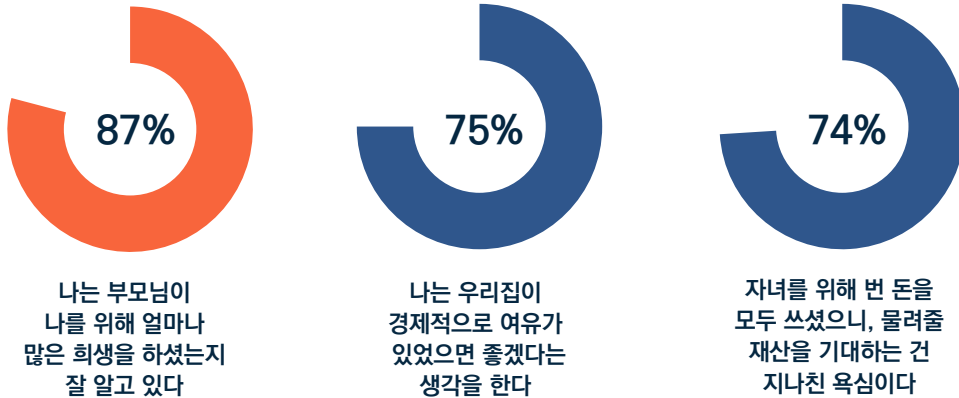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2017.04.28. (전국, 19~6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3.10.~15)

● 자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다' 87%

-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자녀들 역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75%),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으며(87%),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번 돈을 모두 쓰셨으니 물려줄 재산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74%)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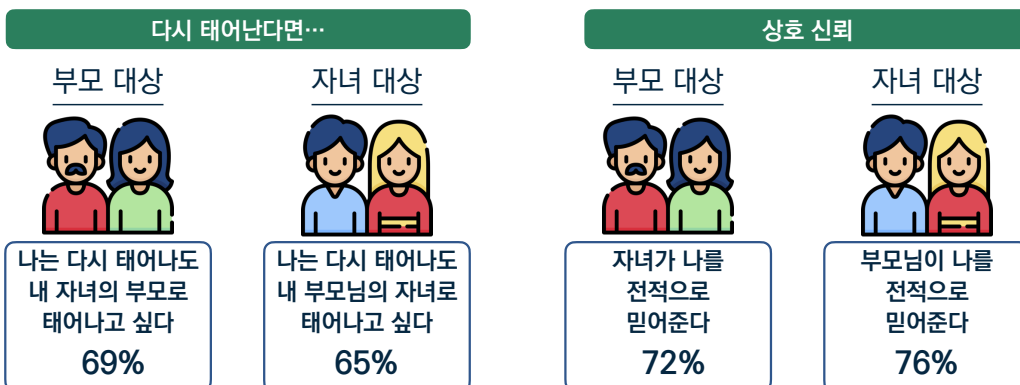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2017.04.28. (전국, 19~6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3.10.~15)

2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부모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69%였으며, 자녀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은 65%로 부모와 자녀간 상당한 신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부모 세대 vs 자녀 세대에 대한 인식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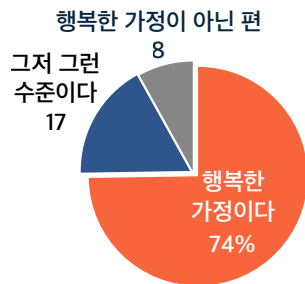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2017.04.28. (전국, 19~6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3.10.~15)

3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다' 74%

- 현재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행복한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4명 중 3명 꼴로 나타남
-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우리 집 행복 정도 (%)



[그림]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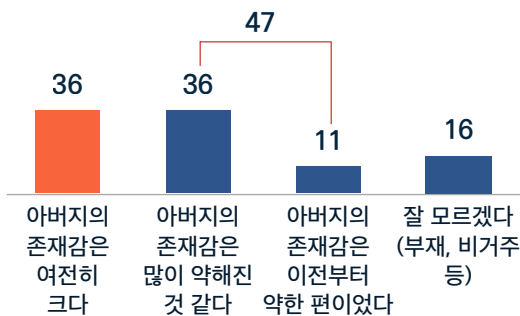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2017.04.28. (전국, 19~6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3.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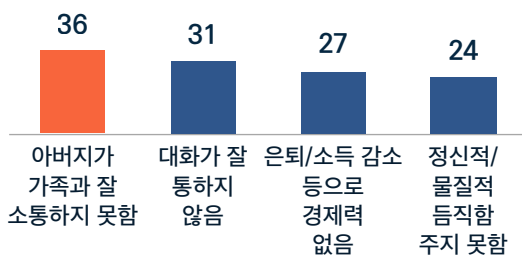
4 나의 아버지, '우리 집에서 존재감 약하다' 47%

-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해 질문했는데, '여전히 크다'(36%)는 인식보다 '약하다'(47%)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아버지의 존재감 인식은 가정 행복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아버지의 존재감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아버지의 존재감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버지의 존재감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로는 '가족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

[그림]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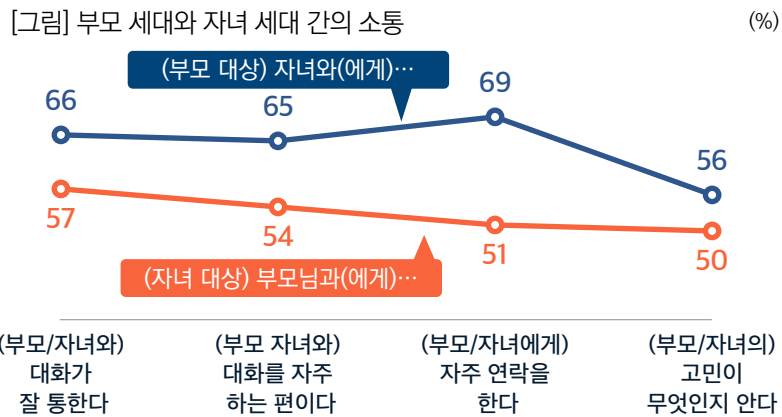
[그림] 아버지 존재감이 약한 이유 (중복 응답, 상위 4위)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2017.04.28. (전국, 19~6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3.10.~15)

5 부모와 자녀의 소통, 부모가 자녀보다 더 적극적!

- 부모와 자녀의 소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자녀보다 부모가 상대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부모의 경우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한다' 66%,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65%, '자녀에게 자주 연락한다' 69%인 반면, 자녀는 그보다 10%p 이상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연락하고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모의 경우 자녀의 고민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56%인데 반해, 자녀는 부모의 고민에 대해 50% 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해, 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2017.04.28. (전국, 19~6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3.10.~15)

● 부모와 자녀 모두, '상대방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느껴!

-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녀/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해 67%가,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 대해 7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두 그룹 간 높은 인식 차이를 알 수 있음

[그림] 부모 세대 vs 자녀 세대에 대한 인식 3 (%)

...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는 충분히 존경 받을(존중해줄)만한 세대이다

부모 대상
자녀 세대는...



78%

자녀 대상
부모 세대는...



67%

부모 대상
자녀 세대는...



72%

자녀 대상
부모 세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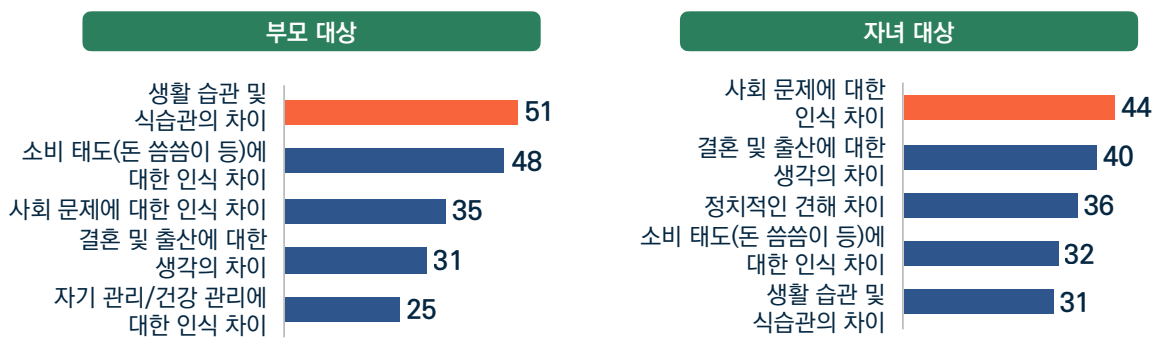
73%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2017.04.28. (전국, 19~6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3.10.~15)

● 세대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 부모는 ‘생활 습관/소비 태도’의 차이를, 자녀는 ‘사회 문제/결혼·출산’ 인식을 각각 높게 꼽아

- 세대 갈등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부모와 자녀간의 큰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는 ‘생활 습관/식습관의 차이’(51%)와 ‘소비 태도(돈 씬씀이)’(48%)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보았으며, 자녀는 ‘사회 문제’(44%)와 ‘결혼/출산’(40%)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장 크게 지적함
- 자녀들의 생활 패턴과 소비 활동 차이는 부모의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 사회적 인식 차이는 의견 충돌로 이어져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림] 세대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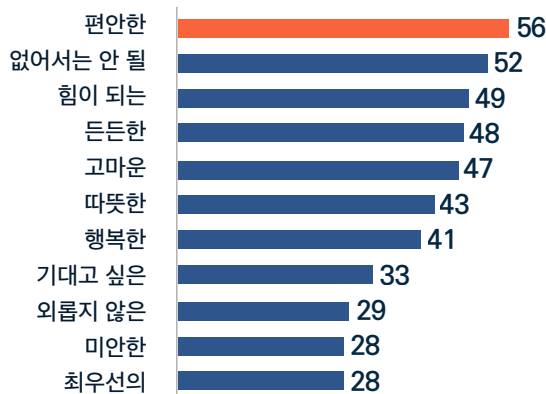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2017.04.28. (전국, 19~6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3.10.~15)

6 가족이란... '편안함', '없어서는 안 될', '힘이 되는'

- 우리나라 사람은 가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가족의 의미를 질문하였는데, '편안한'이 56%로 1위였고, 다음으로 '없어서는 안 될' 52%, '힘이 되는' 49%, '든든한' 48% 등의 순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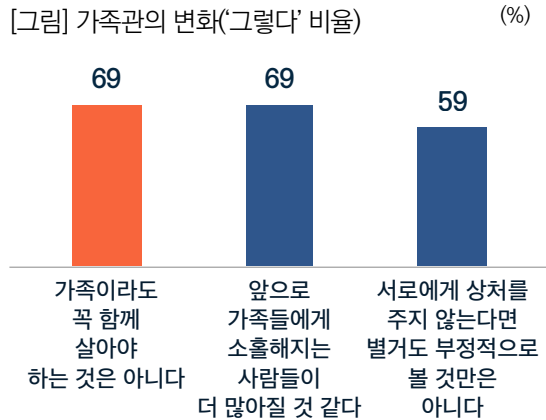
[그림] 가족의 의미(상위 11위)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가족관 조사', 2017.11.10. (전국, 13~5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7.20.~25)

●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관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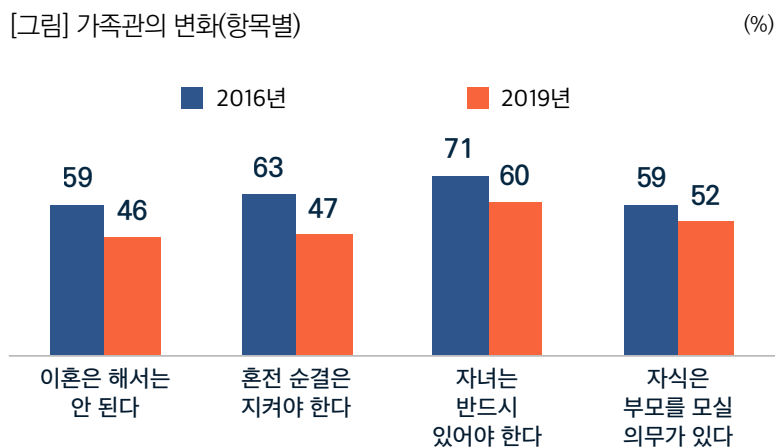
- 핵가족화,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관이 변하면서 가족관도 변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69%가 '가족이라도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비율도 69%나 됨.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별거도 괜찮다'는 인식도 절반이 넘음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가족관 조사', 2017.11.10. (전국, 13~5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7.20.~25)

●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2016년 59% → 2019년 46%

- 가족관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016년 59%에서 2019년 46%로 13%p 하락함
-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63%에서 2019년 47%로 16%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71%에서 2019년 60%로 11%p 하락함
- '자식은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는 의견은 2016년 59%에서 2019년 52%로 7%p 하락했는데, 앞으로 이런 인식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못하고 노후까지도 독자생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현재의 기성세대는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19.12.18. (전국, 19~79세, 5,100명, 가구방문 면접조사, 2019.08.-09)

7

시사점

가정'은 공기나 물과 같다. 평상시에는 존재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 때 크게 숨 한번 쉬는 것과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가정'은 그냥 '편한 곳'이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꾸밈 필요도 없고 남과 겨뤄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내 존재의 버팀목과 같다.

그런데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는 가족 간의 기대 불일치 혹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3쪽 위)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소통이 잘 안되니 부모는 자녀를 향해, 자녀는 부모를 향해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고 섭섭해 한다(6쪽 아래). 가족 간의 이해 부족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서로 간에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5쪽 위).

이해 부족에 대한 지적은 특히 '아버지'에게 향해 있다(5쪽 아래). 아버지는 자녀들과 소통이 적어 집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아버지의 약한 존재감은 아버지에게 위기이지만 자녀에게도 위기가 된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를 통해 성 역할과 부모 역할을 배운다.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나중에 자신의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킨다'는 옛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데,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약하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배울 수 없게 되고 자녀들도 나중에 자신들의 아버지를 답습하게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가 절대적이다. 더군다나 가족 형태나 가족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지금껏 해 오던 대로 가족을 바라본다면 가정의 위기는 줄어들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 기대하는 것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족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에서는 얻기 어렵다. 하지만 교회는 가능하다. 교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모와 자녀를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부모와 자녀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가족 간에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예배이다. 가정예배 때 관심의 대상을 성경과 하나님으로 두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상의 소통과 이해의 장이 또 있을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오로지 가정예배 밖에는 없을 것이다.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5월 가정의 달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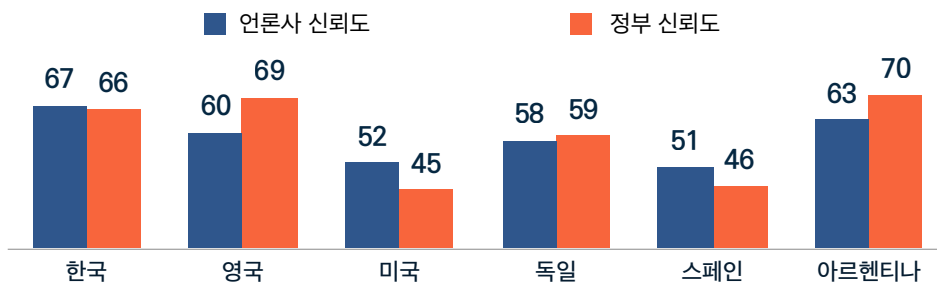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코로나19 관련 뉴스 출처, 6개국 중 한국인의 언론사 신뢰도 가장 높아!

-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에 대해 6개국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인의 언론사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미국과 스페인의 언론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6개국 중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고, 미국이 가장 낮음
- ※ Note : 본 조사 시점(3월 31일-4월 7일)은 유럽의 경우 일별 확진자 수가 3만 명 이상씩 발생하며 폭증하는 시기였고, 한국은 100여 명씩 발생하던 시기인 점을 유의할 것

[그림] 코로나19 관련 뉴스 출처 '신뢰한다' 비율 (6개국 비교) (%)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Navigating the 'infodemic': How People in Six Countries Access and Rate News and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2020.04.15.(6개국 한국 1,009명, 영국 2,216명, 미국 1,273명, 독일 2,003명, 스페인 1,018명, 아르헨티나 1,003명, 총 8522명, 온라인 조사, 2020.03.31.-04.07)

● 한국인, 6개국 국민 중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 쇼핑하며 가장 활발하게 일함

- 각국에서 국민들이 일상 행동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한국은 '온라인 쇼핑' 38%, '일하러 갔다' 35%,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21%, '배달 음식 주문' 21%로 6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상 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온라인과 배달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임

[표] 일상 행동 수행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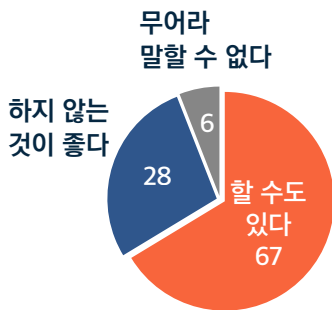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집에서 일했다	39	29	26	22	33	52
운동 또는 산책을 했다	33	51	33	35	21	13
온라인 쇼핑을 했다	38	18	23	20	17	16
쇼핑을 다녔다	9	17	15	43	13	27
일하러 갔다	35	11	20	19	11	8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21	2	11	5	4	16
대중 교통을 이용했다	21	1	3	6	2	3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Navigating the 'infodemic': How People in Six Countries Access and Rate News and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2020.04.15.(6개국 한국 1,009명, 영국 2,216명, 미국 1,273명, 독일 2,003명, 스페인 1,018명, 아르헨티나 1,003명, 총 8522명, 온라인 조사, 2020.03.31.-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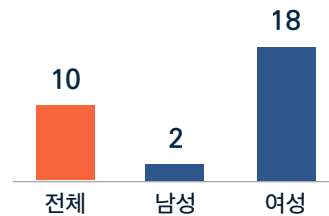
2 취업·결혼을 위한 성형수술 '할 수도 있다' 67%

- 취업이나 결혼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정도(67%)가 '할 수도 있다'고 응답해, 성형수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형수술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남성'은 2%, '여성'은 18%가 '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여성의 성형 수술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1994년 4%, 2004년 9%, 2015년 14%, 2020년 18%)

[그림] 취업·결혼을 위한 성형수술 수용 태도 (%)



[그림] 성형수술 '해본 적 있다' 응답률(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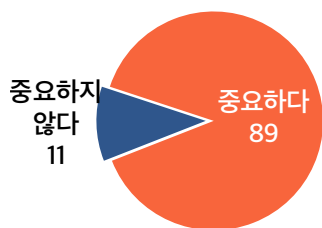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 갤럽, '외모와 성형 수술에 관한 인식', 2020.04.09. (전국, 19세 이상, 1,500명, 개별 면접 조사, 2020.02.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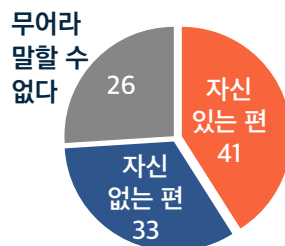
● 우리 국민, 절대 다수(89%)가 인생에서 외모 '중요하다'

-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를 묻은 결과, 89%가 인생에서 외모는 '중요하다'고 인식함
- 외모에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편' 41%, '자신 없는 편' 33%으로 자신있다는 사람이 자신 없다는 사람보다 약간 더 많음
- 자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남성(44%)이 여성(38%)보다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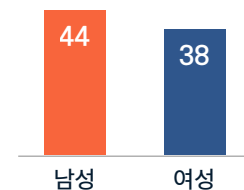
[그림] 외모에 대한 인식** (%)



[그림] 외모에 대한 자신의 평가 (%)



[그림] 외모에 대한 '자신 있다' 응답률(성별) (%)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한국 갤럽, '외모와 성형 수술에 관한 인식', 2020.04.09. (전국, 19세 이상, 1,500명, 개별 면접 조사, 2020.02.07.-20)
 ** 4점 척도로 '중요하다'는 '매우 중요하다'+어느 정도 중요하다'를 '중요하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별로 중요하지 않다'를 합한 수치임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코로나19 이후 종교단체 신뢰도, 작년 45점 → 올해 29점으로 크게 떨어져!](#)

중앙일보_2020.05.06

“코로나 정부 의료대응 만족’ 70% ‘경제대응 불만족’ 39%

 [온라인 수업 관련 초중고 교사 긴급 설문조사](#)

매일 경제_2020.05.01

“교사 절반 ‘등교 후에도 온라인수업 활용’”

 [e스포츠 전성시대](#)

매일경제_2020.05.01

“집콕 시대…e스포츠는 최대 호황”

 [자식이 부모 모셔야 한다, 찬성보다 반대가 높아](#)

연합뉴스_2020.05.04.

“자식이 부모 모셔야 한다’는 건 ‘옛말’…반대 41% vs 찬성 23%”

 [미혼 남성 직장인, 연봉 4천 235만원 이면 결혼하겠다](#)

매일경제_2020.04.27

“사회초년생 20% ‘이직한다면 1천만원은 더 받고 싶다’”

 [빈곤국들, 무서운 ‘기근 팬데믹’ 공포](#)

세계일보_2020.05.05

“지구촌 곳곳 감염 위험에 최악 기근까지 ‘설상가상’”

스토리가 있는 기사

 [Z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세계일보_2020.05.05

“‘꼰대’ 향한 ‘오케이 부머’ 외침… 포스트부머 ‘선전포고’ 되다”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던지는 리더십](#)

오마이뉴스_2020.04.222

“‘코돌이’ 당선자들이 배워야 할 정은경 리더십 세 가지”

 [코로나 이후의 요구되는 리더십 : 메타리더십](#)

매일경제_2020.05.07

“코로나가 바꾼 리더십…위기 관리형 리더 지고 위기 후 내다보는 리더 뜬다”

넘버즈 칼럼

청년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담임목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WELOVE - ‘공감하시네’ - 듣기)

요즘 청년들이 많이 듣는 ‘공감하시네’라는 CCM의 후렴구입니다. 청년들이 왜 이 곡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지금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성세대도 다 경험해 본 어려움이라고 말하기엔,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위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곡에는 지금의 어려움이 확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적 고통에 찾아오셔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를 교회의 공감 능력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교회가 청년을 향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떼는 말이지...”가 교회에서도 지배적인 언어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년들로 하여금 지금의 불확실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지와 공감이지, 설부른 조언이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아닙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펴낸 『청년트렌드리포트』(2017)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리포트의 “한국교회 젊은 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를 보면 ‘문화적 선교 전략 마련’, ‘소통의 장 마련’, ‘비권위주의적 태도’가 청년 세대 이탈의 대안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문제는 9%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설문에 따르면, 청년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물질 문제의 해결보다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공감하고 귀 기울이는 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회자들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세대 목회자들에게서도 성도들을 향한 공감보다 설부른 판단과 정답 제시가 앞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성도들에게도 전이되어 교회의 문화나 정서로 자리 잡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마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청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공감과 소통의 큰 장애물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성경적인 정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나 압박감이 목회자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와 이슈들을 목회자 홀로 따라잡기엔 매우 복잡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아도, 삶의 고통과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나 목회자의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옴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가 고통당하는 청년들에게 옴의 친구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목회자와 교회 어른들의 훈수가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편, 청년과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교회의 의사 결정 체계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교회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당회나 제직회가 모두 기성세대들을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참고 사항에 그칠 뿐,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늘 교회를 향하여 소통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를 향해 애정과 열심이 있는 청년들일수록, 교회에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거나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20-30대 연령의 당선자가 13명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적은 수이긴 하지만, 지난 선거에 비하면 10명이 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만 비춰지던 청년들이 이제 정치 영역에서도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미 청년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교회는 청년들을 지도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청년들은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당회나 제직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한 회의에 청년 대표들이 참석하게 하고 언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동의회 등에서 이미 이런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을 뿐이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교회에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목회자들의 태도 변화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대다수의 교회에게 이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향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 글은 기윤실 좋은 나무(5월 6일)에 게재된 글입니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